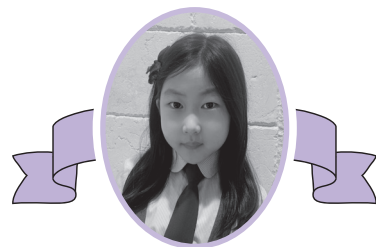


동상





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우리 국토



김민송 |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

학교에서 선생님이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가 있다 하셔서 국토TV를 보게 되었다. 하늘에서 본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까? 정말 궁금했다. 무슨 모양일까?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을까? 무슨 종류의 나무가 많이 보일까? 보기 전에는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다. 하늘에서 본 우리 국토는 아름다울 것 같다. 처음 본 거재 장승포항은 물결과 배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. 마치 배들이 폭풍을 맞이하지 않고 장사도 잘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힐 것 같았다. 두 번째로 본 제주 비밀의 화원은 진짜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.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연 중에서 일등이다!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. 나는 이곳 비밀의 화원에 장미를 가득 심고 싶다. 왜냐하면 장미는 향이 되게 좋아서이기 때문이다. 좋은 향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. 세 번째로 본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은 녹차밭이 돋보였다. 녹차밭이 기사들이

행진하는 것처럼 보였다. 연두색깔 중에는 하얀색으로 착각할만한 색도 있고, 청록색으로 착각할 색도 있었다. 푸른 밭들이 수없이 깔려져 한 줄로 나란히 서있는 듯 푸르고 예뻐다. 네 번째로 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해안은 자연과 함께 놀 수 있을 것 같았다. 특히 에메랄드색 바다와 하트 모양이 엄청 특이하고 예뻐다. 건물 옥상에 집이 있었는데, 거기 사는 사람들은 피크닉도 안 가도 되고 돌고래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. 다섯 번째로 본 대전 월드컵경기장은 웅장하고 화려해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. 하얀색 월드컵경기장 외관이 주변과 어우러져 있고, 안의 파란색 의자와 하얀 건물이 잘 어울린다. 여섯 번째로 본 서울 양화대교는 진짜 서울 느낌이 들었다. 도로와 차들이 활기찬 느낌이고, 자연이 뿜내고 있는 것 같았다. 거기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잘될 것 같다! 전봇대도 한 줄로 잘 정돈돼 있었다. 일곱 번째로 본 서울 여의도는 건물과 강, 다리, 기차 등이 자연과 하나인 것 같았다. 웅장한 빌딩이 자연과 합쳐진 느낌이 좋았다.

하지만 거기에는 도로 중간중간에 쓰레기봉투가 보였고, 물은 조금 더러워 보여서 마음에는 안 들었다. 여덟 번째로 본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변 건물은 낮지만 활기차고 시골스럽지만 정겨워 보였다. 건물들 사이로 나무가 엄청 많아서 예뻐다. 하늘색이 오로라색을 닮았다. 너무 멋진 하늘이었다. 꼭 가보고 싶다! 마지막으로 본 분당 율동공원은 이름처럼 율동도 하고 운동도 잘될 것 같았다. 물도 맑아 보였고 쓰레기도 없었다.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다! 거기서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. 나중에 애완동물이 생기면 거기 같이 가서 놀고 싶다. 그리고 차들도 많이 오가서 인기가 정말 좋을 것만 같다.

율동공원은 정말 멋지다! 하늘에서 본 국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곳은 제주 비밀의

화원이다. 나라면 거기에 꽃을 더 많이 심었을 것이다. 꽃밭으로 만들고 싶다. 부모님과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을 갔을 때와 하늘에서 본 느낌은 달랐다. 하늘에서 본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. 병사들이 줄을 지어 가는 정돈된 느낌이었다. 초록색이 많아서 거기 가면 눈이 맑아질 것 같다. 보기 전에는 나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무가 생각보다 많았다. 나무 모양은 조금 더 예뻐지면 좋겠다. 나라면 나무를 고양이 모양으로 깎았을 것이다.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거기에서 책도 읽고 책뱃 쉼터가 될 수 있다. 고양이 모양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, 곰돌이 모양, 꽃 모양도 깎을 것이다. 그리고 고속도로를 넓힐 것이다. 왜냐하면 차들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도로를 더 넓히고 싶다. 그리고 식물도 많이 심을 것이다.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나무놀이터를 만들 것이다. 나는 자연을 이용해서 도시를 만들 것이다. 특히 책뱃 쉼터와 나무놀이터를 만들고 싶다. 자연은 정말 소중한 것 같다. 앞으로는 풀과 꽃을 꺾지 않을 것이다.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. 더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위해!